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시는 날

죄악이 완전히 박멸소탕되어야 안식일이 이루어진다

안식일은 성경상의 용어로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한 후 제 7일에는 쉬셨다고 하는 바로 이 일곱 번째 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한다.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에서만 사용되는 개념이지 다른 종교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용어가 없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를 안식일로 지켜와 모든 일손을 쉬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이는 모세의 십계명(十誡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날에는 모두 쉬도록 명하였기 때문이다(두산 백과사전). 그리하여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전통이 있다.

한편 기독교 대다수 종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위 일요일에 부활하였다고 하여 일요일을 안식일 즉 주일로 정하여 지켜오고 있는 반면 안식교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안식일의 논란은 기독교 교리 역사에 있어서 매우 오래된 것이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꼭 지키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꼭 지키게 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안식일을 더럽히면 죽게 되며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고 경고하셨다(출애굽기 32:12-17). 안식일이 대관절 무엇이기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생명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를 지키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중요한 날로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어떤 필요가 있으셨던 것 아닌가? 그렇다면 안식일은 언제인가? 기독교계통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인가? 이에 대한 답은 성경 히브리



죄악을 멸하는 이슬성신이 나타난 사진(진해재단)

서에 나온다. 즉 “제 칠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 칠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히브리서 4:4~)”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한 것을 보아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같은 요일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 같은 요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이처럼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는 요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안식일은 그러면 무슨 날인가? 성경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을 의미하지 사람이 쉬는 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세상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 쉬셨다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이 안식일이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하루가 천 년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들을 짝을 맞추어 해석하면 7일은 7천 년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7천년대에 이르러서야 안식하시게 된다는 뜻을 알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레 되는 날 쉬시고 여드레 되는 날 또 일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쉬었다고 해야 맞다. 왜냐하면 성경에 8일째 무엇을 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즉 안식은 영원 무궁토록 계속 쉬는 어느 시점을 말할 수 없다.

안식일을 완성하는 구세주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고 안식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적이 되는 마귀가 완전히 멸절되어야 한다. 마귀가 한 마리라도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쉬 수가 없다. 마귀와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철천지원수의 존재들이다. 하나님과 마귀는 영원 전부터 계속해서 서로 싸워왔는데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마귀가 하나님을 포로로 사로잡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식인 인간들을 죽여 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창세기는 천지창조를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기록이다. 하나님이 6000년 전에 마귀에게 패하였기 때문에 전지전능의 능력을 잃으셨고 마귀에게 죽임을 당하는 무능한 존재로 전락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우주 만물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귀에게 패한 후 마귀의 영육(靈獄)에 갇힌 비참한 모습이다.

따라서 마귀에게 패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6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안식일을 완성하실 구세주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시다가 기어이 1980년 10월 15일자로 완성하셨던 것이다. 구세주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마귀를 완전히 박멸소탕하여 원래의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회복 존재이다. 그러므로 육천 년간 안식일이 없었는데도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안식일이라는 논쟁은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는 안식일의 진의를 모르는 잘못된 확설에 불과하다.*

김중천 기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58)

“자유 속에 행복이 있고 진리 속에 자유가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2)라고 성경은 논한다. 진리란 하나님 자체이므로 완성의 하나님, 이진자가 되기 전에는 완전자유란 있을 수가 없다.

원래 인류의 조상이 날아다니며 완전자유 속에서 살았던 것이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자유 속에 있는 것이지 구속을 받는 가운데는 행복이 없는 것이다. 여기서 문으로 나간다면 자유가 없

는 것이다. 벽을 통해 나갈 수도 있고 천정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어야 자유의 몸이다. 마음대로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 자유다. 날고 싶으면 날아야 되는 것이 자유지 날고 싶은 존재가 날 수가 없이 걸려 다닌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

자유 속에 행복이 있고 행복 속에 자유가 있다. 진리 속에 행복이 있고 진리 속에 자유가 있는 것이다.*

구도의 길

양로원에 쌀을 백가마 갖다 줘도 죄(?)

‘나라는 의식’이 원죄이므로 ‘나라는 의식’이 주체가 되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죄가 된다

‘나라는 의식’이 죄의 뿌리(원죄)라는 것을 조희성 구세주께서 가르쳐 주셨다. 또한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그 ‘나라는 의식’이 핏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셨다. 이것은 죄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신앙인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말씀이다.

왜냐하면 죄의 뿌리가 뭘지 모르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봐야 헛일이 되기 때문이다. 죄의 근원인 ‘나라는 의식’이 존재하는 한 죄를 안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죄를 몽땅 짓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나라는 의식’이 원죄이므로 ‘나라는 의식’이 주체가 되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죄가 된다. 설령 그것이 남을 도와주는 행위일지라도 ‘나라는 의식’이 주체가 되어 행해졌다면 죄가 된다는 것이다.

한편 기독교에서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죄라고 하면서, 원죄란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 즉 불순종이 원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한심한 이론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불교에서는 무아(無我), 즉 ‘나’라는 것은 원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불교에서

는 죄의 근본이 ‘나라는 의식’임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유식(唯識) 불교에서 논하는 제7식(識) 말나식(末那識)은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을 나의 마음이라고 집착하는 마음, 즉 자아집착심(요코하마 코이치가 쓴 <마음의 비밀> 민중사 권을 참고하여 풀어 씀)인데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고찰한 것을 볼 때 불교는 상당히 차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나라는 의식’을 제거하는 것이 구도(求道)이며 수행(修行)의 길이다. 그렇다면 ‘나라는 의식’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명상을 하고, 화두수행을 하고, 보살행을 하는 등 여러 종교에서 나름대로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낡은 차원의 수행법이다. 구세주께서는 새로운 수행법을 제시하신다. 즉 ‘반대생활’이다. ‘반대생활’이란 ‘나라는 의식’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사는 것을 말한다. 졸리면 잠을 안 자고 안 졸릴 때 자고, 배고프면 밥을 안 먹고 먹고 싶은 생각이 없을 때 먹으며, 일을 하기 싫으면 더욱 열심히 일을 하고, 미운 사람을 더욱 사랑하는 생활이다. ‘반대생활’을 통해서라면 죄악의 원흉이 되는 ‘나라는 의식’이 없어진다.*

본부재단 3월 활동 시상



전도도 잘하는 5지역 전체 1등 차지

본부재단 3월 성적이 4월 7일 구역장회의에서 발표되었다. 3월 한달간 최우수 성적을 받은 지역은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이며, 3지역(지역장 김갑용, 지회장 이승애)과 4지역(지역장 윤봉수, 지회장 이영애)이 그 뒤를 이었다. 1등부터 3등까지 들어간 지역의 성적을 살펴보면

전도 점수가 순위를 갈랐음을 알 수 있다. 특히 5지역이 3지역을 앞선 것은 월등한 전도 점수에 있다. 윤봉수 대표는 성적 우수자들에게 시상하면서 “지금 받는 이 상은 세상의 상과 전혀 다른 차원의 상이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한 결과에 대해서 상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공로가 쌓여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큰 상을 받을 것을 확신한다”고 축하 메시지를 주었다.

2015년 3월 성적현황

지역 1등, 5지역
지역 2등, 3지역
지역 3등, 4지역

구역 1등, 45구역 신순이 구역장
구역 2등, 21구역 안명숙 구역장
구역 3등, 38구역 김정순 구역장

개인 1등, 안명숙 승사
개인 2등, 신순이 권사
개인 3등, 이승우 승사.*

승리재단에서는 諸宗教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제종교

三神一體 一人出 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 일인출

진인

감로



본부재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청주재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부재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재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